



John 12

요한복음 12
Tape #8080
By Chuck Smith

Let's turn to John chapter twelve. John tells us here,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자.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which had been dead,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12:1).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The next day was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which would be then Sunday, five days before the Passover. Which would make Monday four days before the Passover, Tuesday three days before the Passover, Wednesday would be two days before the Passover. And of course, the Passover would be Thursday. The reason why they have called Friday the day of crucifixion and they call it Good Friday is that we know it was followed by the sabbath day. And thus, the ladies did not come to the tomb until early in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유월절 엿새 전에.” 다음 날 즉 유월절 닷새 전에는 예수께서 도무 당당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되는데, 그 날은 일요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은 유월절 나흘 전에 해당하고, 화요일은 유월절 사흘 전에 해당하고, 수요일은 유월절 이틀 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물론 유월절은 목요일에 해당하게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금요일이라 하며 사람들이 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週)의 첫날 새벽이 도래하기 전에는 무덤에 와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But John tells us that that particular sabbath was a high sabbath. That is, it wasn't the regular weekly sabbath but it was the sabbath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the day after the Passover began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 sabbath day. And it was to be observed as a sabbath day so in reality, you would have had a double sabbath. Jesus was crucified on Passover. He had had the Passover meal with His disciples the evening before. But with the Jews, the day began at sundown. So He had the Passover feast with His disciples. The next day would have been Passover day and of course, it was significant, symbolic, and necessary that He be crucified on Passover, fulfilling then this Old Testament feast day or holiday. 그런데 요한은 그 특별한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한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은 통상적인 주(週)의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의 안식일이었던 말이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그 날도 사실상 안식일처럼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안식일이 겹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셨다. 그분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날은 일몰 후에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게 된다. 그 다음 날은 유월절 당일이었는데, 물론 그 날은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인 날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구약의 절기 즉 축일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We get it also in Mark's gospel, beginning in chapter eleven where Mark tells us of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there in chapter eleven. And then we read in verse twelve of chapter eleven, that is the triumphant entry on Sunday, and “on the morrow,” which would be Monday, they returned from Bethany to Jerusalem and Jesus saw this fig tree and it had no fruit so He cursed it. And then He went into the temple and cleansed the temple. And when the even was come, He went out of the city [verse twenty] and in the morning, as they passed by they saw the fig tree dried up from the roots. This would be on Tuesday. On this day Jesus talked to them about faith. He then had a confrontation with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and also with the religious rulers. So the Olivet discourse taking place, and then in chapter fourteen after two days was the feast of the Passover. So the two days would bring you again to Thursday. 이 사건을 마가복음을 통해 읽을 경우, 거기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11장부터 시작된다.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요일에 있었고 “이튿날” 즉 월요일에는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오셨다고 되어 있다. 그 날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셨다고 한다. 그런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날이 저물매 그분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20절] 아침이 되어 지나가시다가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셨다. 이 날은 화요일이었다. 이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후에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맞부딪치게 되셨다. 그러다가 감람산 강화(講話)가 베풀어지게 되고, 이어서 이틀 후 14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이 닥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틀 후면 다시 목요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So not dogmatic but it's sure a lot easier to se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grave if you have Thursday as the day of crucifixion, rather than Friday. If you have Friday, you have to really struggle to get Him in the grave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before He raised from the dead. But if you have a Thursday crucifixion with the double sabbath, then it fits in quite easily. 교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3일 3야를 그분께서 무덤에 계셨다고 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다. 만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가정한다면, 그분께서 3일 3야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내신 후 살아나셨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목요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고 가정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다.

Both John and Mark would seem to indicate that the Passover was on Thursday of that week. So Jesus,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lived and his two sisters.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모두 유월절이 그 주의 목요일이었다고 시사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월절 6일 전에 나사로와 그의 두 누나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던 것이다.

And they made Him a supper; and [guess what] Martha served (12:2):

And guess what, Martha served. You're just true to character. We remember the earlier incident when Jesus had visited in the house with Mary and Martha. How that Mary wa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worshipping, and Martha was busy fixing things, getting things, serving and she said, Lord, send Mary out here to help me. Left me to do all the work while she just sits there. And you remember how Jesus sort of chided Martha. Martha, Martha, you're cumbered about with many things. But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한 번 생각해 보라.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이전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 날도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원가를 만들고 준비하며 봉사하느라고 바빴다. 그녀는 주여 마리아를 제게 보내어 저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 애는 거기 앉아 있는데 저만 혼자 일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그 때 예수께서 마르다를 약간 꾸짖으신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느라 노심초사하는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단다.

So it seems like a person is sort of true to his nature. There are those who just love to serve. And they just come by it naturally and then there are others who are more contemplative. They love to just sit and worship. So we read here that, “Martha served.”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처신하는 것 같다.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편을 택한다. 한편 명상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앉아서 예배하기를 즐긴다.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but Lazarus was one of them that sat at the table with him. Then took Mary [and true to form] a pound of ointment of spikenard, which was very costly, she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odor of the ointment (12:3).

Both Matthew and Mark tell us of this incident. We are told that it was in the house of a man by the name of Simon. And we are told how that there was an objection from the disciples about the cost of this perfume.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모두 이 이야기가 들어 있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한다. 향유의 값 때문에 제자들이 반발하였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This incident is not to be confused, however, with Luke's account where there was a Pharisee named

Simon who invited Jesus to supper and the woman who was a sinner came and stood at His feet weeping and wiping then His feet with her hair from her tears, and anointing His feet with perfume and kissing His feet profusely. Simon the Pharisee said, If this man were really a prophet, He wouldn't have allowed that woman to touch Him because she's a sinner. And Jesus' confrontation with Simon the Pharisee over the woman declaring that because she was forgiven much, she loved much and He's offering the forgiveness of her sins (Luke 7:36-47). 그러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며 그분의 발을 눈물 젖은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그분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입을 맞추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말했다: 만일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는 죄인이니 그녀로 하여금 자기 발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일로 시몬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녀는 용서 받은 바가 크기 때문에 사랑도 크게 하는 것이니라. 그분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눅 7:36-47).

That was a different incident. This is again just six days now before His crucifixion. Mary who is perceptive. Mary who is sensitive has picked up on the heaviness that the Lord is going through at this time as the time of the cross has come. And she is sensitive to His spirit. And so she is desiring to do something that is special, a special demonstration of her love for Him. So she took this ointment or perfume of spikenard which was very costly and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odor of the ointment. 이것은 다른 이야기다. 다시 말하지만,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일이었다. 마리아는 지각이 있는 여자였다. 사려 깊은 마리아는 이 때 예수께서 지고 가실 짐을 가볍게 해 드리고자 맘 먹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 드리고 싶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매우 값이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았던 것이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다.

Then said one of his disciples (12:4)

and John identifies which of the disciples who objected. It was,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누가 반감을 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는 가롯 유다였다.

Judas Iscariot, Simon's son, the one that would betray him, and he said, "Why was not this perfume sold for three hundred pence, and given to the poor (12:4,5)?"

The other gospels record him as saying, Why this waste? A pence was an average pay for a day's labor. So three hundred pence would be the salary that you would earn working three hundred days. If you worked a six-day week, it's the salary that you would get almost for a year's work. And thus, as John said, it was very costly. And so Judas spoke up in objection to this. But John, not going to gloss things for Judas, he said,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가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이었다. 그러므로 삼백 데나리온이면 여러분이 삼백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엿새를 일한다고 치면 거의 일년 내내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그것의 값이 지극히 비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다가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 유다의 행동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This he said, not because he cared for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nd he had the bag, and bare what was put therein (12:6).

Judas was the treasurer of the group. He kept the bag of money but John said he was a thief and he was taking from the bag for his own personal use. He was filching out of the bag. He bared what was put there. So he was taking from the bag. 유다는 예수님 선교 집단의 재무 담당자였다. 그는 돈 자루를 맡고 있었는데, 요한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도적이었다고 한다. 그 돈을 사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는 그 돈 자루에서 조금씩 훔쳐내고 있었다. 자기가 돈 자루를 메고 다녔으므로 얼마든지 빼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And so Jesus said, "Let her alone: against the day of my burying has she done this (12:7).

This is an anointing for my burial. 이 여인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느니라.

For the poor always you have with you; but me you will not have always. Many of the Jews who knew He was there came not only for Jesus' sake, but they wanted to see Lazarus,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But the chief priests consulted that they might put Lazarus also to death; because that by reason of him many of the Jews went away, and believed on Jesus (12:8-11).

In the last chapter, we find the high priest Caiaphas in their counseling of what they should do about Jesus and in their conspiring to put Him to death, the high priest Caiaphas said, Don't you realize that it is necessary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nation (John 11:51). 11장에서 대체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 때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를 모의하고 있었다.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 11:51)?

Now it has gone from one to two. It's an amazing thing how sin can compound. It starts out with one, but now it's necessary as they see to put two to death. Let's put Lazarus to death also because of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being attracted to him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d been dead for four days. So sin has that way of compounding. David sinned with Bathsheba, compounded into the murder of her husband. 이제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난 것이다. 죄가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사로도 죽입시다. 그가 나홀 만에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는 그런 식으로 가중되어진다. 다윗은 밋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은 후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더하였다.

On the next day many people that were come to the feast (12:12),

That is,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y were beginning to gather now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coming early, spending the days in purification, going through the rite of purification so they'd be able to enter into the temple and join with the worship in the temple precincts. So "many people that were come of the feast," 이 절기는 유월절이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일찍부터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일을 정결하게 지내며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성전에 들어가 성전 구내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큰 무리가 명절을 당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They took the branches of the palm trees, and they went forth to meet him, and cried, Hosanna: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Jesus, when He had found a young donkey, sat thereon; as it is written, Fear not, daughter of Sion: behold, thy King cometh, sitting on a donkey's colt. These things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t the first: but when Jesus was glorified, then they remembered that these things were written of him, and that they had done these things unto him (12:12-16).

So His day of presentation to the nation as their Messiah.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Zechariah, He was riding on a donkey. The people began to cry a Messianic psalm, Psalm 118. Hosanna, Hosanna. They were crying it in Hebrew, the translation is, Save now. And as you read in Psalms, it is translated there, "Save now!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So this psalm that they were crying out is a prophetic psalm of the Messiah. The prophetic part begins wit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Psalm 118:24). This is the day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the presentation of the Messiah, the promised Messiah, to the nation. And then that psalm goes on to talk abou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is become the chief stone of the corner. This is the work of the Lord; It is marvellous in our eyes." And then it goes on to "bind the sacrifice unto the altar" (Psalm 118:22-24, 27). So it is a psalm that is speaking of Jesus being presented to the nation as the Messiah, tied together with Zechariah, coming in on a donkey.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세상에 내보이시던 날의 모습이다.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 즉 시편 118편을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다. 시편을 보면 이 말이 잘 번역되어 있다.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소리쳐 외우던 이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었던 것이다. 그 예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 118:24). ‘이 날은 하나님이 메시아 즉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일을 위하여 정해 놓으신 날이다’라는 의미이다. 그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뿔지어다” (시 118:22-23, 27). 이 시편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출현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스가랴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다.

And tied together, of course, with the prophecy of Daniel chapter nine where the angel said to Daniel, “From the time that the commandment goes forth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ince will be seven sevens and sixty-two sevens” or four hundred and eighty-three years (Daniel 9:25). And so it is all tied together.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on this day, this day of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as the people are waving palm branches and crying out, Hosanna, or Save now,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that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 9장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단 9:25). 여기서 말하는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는 483년에 해당한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서로 일치한다. 바로 이 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 것이다. 예수께서 도무당당히 입성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You remember that the Pharisees said to Jesus, “Rebuke your disciples, this is blasphemy. And Jesus said, I tell you that, if they at this moment would hold their peace, the very stones would cry out” (Luke 19:39,40). Luke tells us how that Jesus looking over the city wept and He said, If you’d only known the things that belong to thy peace, at least in this thy day but they are hid from your eyes and He spoke then of the desolation that was going to come.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는 참람한 말이니이다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눅 19:39,40).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굽어보시면서 어떻게 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장차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황폐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So this is John’s account of the triumphant entry. It is an abbreviated account in comparison to the other gospels but John had, of course, in hand the other gospels and so he knew that it was covered sufficiently there so did not see the need, I’m sure, to cover it as thoroughly as the others had. 본문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요한의 기록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간결한 기록이다. 그 당시 요한의 손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들려 있었을 것이므로, 그는 ‘나도 다른 복음서들 필자들처럼 완벽한 기록을 남겨야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But John does give us this little insight. They didn’t realize what they were doing when they were doing it. It was just sort of a spontaneous thing. In verse sixteen, “these things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t the first.” But later on, when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they remembered then the scriptures. He’s coming on a donkey. And Psalm 118, they remembered in the scriptures, “the things that were written are the very things that we di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작은 통찰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즉,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일은 그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1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는 시편 118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경 내용을 회상해 볼 때 제자들은 “우리가 행한 일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The people therefore that were with Him when he called Lazarus out of the grave, and raised him from the dead, they were bearing record (12:17).

They were going out around and saying, We were there, we saw him come out of the grave. They were witnessing of what they saw Jesus do. 저들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거기 있었는데, 그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들이 본 대로 증거하고 다녔다.

For this cause the people also that met Him, for that they heard that He had done this miracle. And the Pharisees therefore said among themselves, Do you perceive how we prevail nothing? behold, the world is gone after Him” (12:18,19).

Here is a movement now towards Jesus by the people. But the builders, the religious leaders, are conspiring to set Him at naught. And they will soon have Him hanging on the cross but God will raise Him from the dead. And “the stone which was set at naught by the builders will become the chief or the head cornerstone” (Luke 20:17). The rock upon which the church will be built.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좇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즉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경멸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달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눅 20:17). 이 돌은 교회가 세워질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Now there were certain Greeks among them that came up to worship at the feast: The same came therefore to Philip, which was of Bethsaida of Galilee, and they desired him, saying, Sir, we would like to see Jesus. Philip came and told Andrew: and again Andrew and Philip came and told Jesus (12:20-22).

There are Greeks here. They want to see You. 이들은 희랍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였다.

But Jesus answered them, saying, The hour i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12:23).

From the beginning, Jesus talked about this hour.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when in Cana of Galilee, there in the second chapter of John, the first recorded miracle of Jesus, the turning of water into wine. When Mary came to Jesus informing Him that they had run out of wine, the gentle suggestion that maybe H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He said, What is that to Me? My hour is not yet come. The hour of His being presented to the nation as their Messiah, the hour of His being glorified by the crucifixion and the resurrection.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말이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적 즉 기록된 것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 사건 때부터 그분은 이 ‘때’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분이 세상에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In chapter seven, when they wanted to arrest Jesus, they could not lay their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In chapter eight, as He was teaching in the treasury portion of the temple, again no one could take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But now Jesus knows that the hour ha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Glorified through Hi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7장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연보래 앞에서 가르치실 때 아무도 그분을 잡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기의 시간이 된 것을 알게 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 말이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a kernel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and die, it abides alone: but if it dies, it brings forth much fruit (12:24).

So He gives to them a classic kind of an illustration. Here’s a little grain of wheat. Set it on the shelf, it will just abide there alone. The potential is there of bearing much fruit. But it has to die in order to multiply.

And so Jesus is referring to Himself that through His death, there will be much fruit, the multiplication. The wheat abides alone unless it dies and if it dies, then it brings forth much fruit. 그분은 한 고전적인 예화를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여기에 작은 밀알이 하나 있다. 그것을 선반 위에다 얹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있게 될 뿐이다.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밀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He that lov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hateth his life in this world shall keep it unto life eternal (12:25).

When Peter first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Jesus then said to His disciples,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he who seek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he who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the same shall find it” (Matthew 16:24,25). So Jesus is saying very similar things here. He who loves his life, he who lives for this life, you’re going to lose it. But if you will live your life for Jesus Christ, you’ll discover what really living is.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 16:24).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아주 흡사하다. 자기 목숨을,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생명을 잃는다면, 너는 진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If any man serve me [Jesus said], let him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shall also my servant be: if any man will serve me, him will my Father honour (12:26).

Beautiful words of Jesus of encouragement to those who will be giving their life for Him. Those who love not their own life but were willing to give their lives for Him, Jesus said, “My Father will honor them.” Special place of honor for those who have given their lives for the cause of Jesus Christ. 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격려의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실 특별한 영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Now [Jesus said] my soul is trouble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12:27):

Jesus was reluctant to go to the cross. In Hebrews we are told,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Hebrews 12:2). He went only in obedience to the will of the Father. When in the garden as He was in agony in prayer, sweating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He was praying,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but thy will, be done” (Luke 22:42). It was total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Jesus in now troubled because the shadow of the cross is now falling across the path that He will be walking in just a couple of days. And He’s troubled, He’s concerned about this. “Now is my soul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 12:2). 그분은 단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셨을 뿐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굴복이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우는 길을 이제 이삼 일 안에 걸어야 하는 예수님은 당시 고통스러워 하고 계셨다.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고민하기도 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 12:27).

There are many things that cross our paths that cause our souls to be troubled.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o us or to those we love that we do not understand. And as we try to reconcile these things with the love of God and believing that God is love, we find great difficulty because at the present moment, as I look at this situation I cannot see the purpose that God is working out and I’m troubled. I wonder if God loves me,

then why am I suffering like this? Why have these things happened? Why am I being afflicted if God loves me and I cannot see the purposes of God and my soul is troubled. What should one do when their soul is troubled? Do exactly what Jesus did, He prayed about it. He said,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일을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 내가 왜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망하구나. 이렇듯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때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하라.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But He did more than just pray, He then began to reason. 그분은 기도만 드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시기 시작했다.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12:27).

This is the purpose. God is working an eternal purpose through my suffering. It's for this cause I came into the world. I'm her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to drink the cup. And so He began to see the situation from the eternal perspective. And when our soul is troubled over our immediate problem, it is so good if we can put the problem in the light of eternity. And if we can see it from the eternal perspective, then as Paul the apostle we can say, We know that the present suffering is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shall be revealed. And this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is working an exceeding eternal weight of glory” (2 Corinthians 4:17). God is working out eternal purposes and His eternal plan though it may mean temporary suffering or pain or hardship, difficulty. But I see it in light of the eternal. And then there was finally that submission as Jesus said,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 영구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잔을 마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닥쳐진 상황을 영원의 시각에서 보시기 시작했다. 우리의 영혼이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영원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영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고후 4:17). 우선은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환란을 가져오는 듯이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중이다. 내가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쳐다볼 때, 나는 결국 예수님처럼 그 영원에 굴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Father, glorify thy name (12:28).

The submission. From the prayer, “Save Me from this hour,” to the submission, “Lord, glorify Thy name.” You receive glory, Father. Though it may bring pain and suffering to Me, glorify Thy name. That's the submission to the will of God. 복종하게 된다는 말이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드리는 자세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굴복하게 된다. 아버지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비록 그것이 내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다.

I think that this is so important that we come to the place where we submit the issues to the Lord. Lord, You work. Glorify Your name. And then I have peace. Lord, whatever You want. I'm Yours. And if this suffering is serving an eternal purpose; fine, Lord. I'll accept it. If this trial is going to bring out eternal benefits, then fine, Lord.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위임해야만 할 것이다.

주여, 당신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주여, 그것으로 족하옵시다. 저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이 시련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면, 주여, 그렇다면 좋습니다.

Paul the apostle in writing the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said, “May the God of all comfort; comfort you with the comfort wherewith we were comforted when we were going through affliction.” And then he went on to say, “If I’m afflicted, it’s for your benefit, that as I experience God’s comfort in my affliction, so I’m able then to comfort you (2 Corinthians 1:3-6).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truly comfort or sympathize with someone unless we have gone through that experience ourselves. You don’t really understand the pain and the hurt unless you’ve been there. And when you’ve been there and have experienced that blessed work of the Holy Spirit in comforting your heart, strengthening you to go through, then you can comfort someone else because you’ve been through it.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후 1:3-6).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떤 이를 진실로 동정하며 위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진실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 보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된 위로를 경험한 후 힘을 얻어서 헤쳐 나왔다면, 우리는 이미 겪은 일을 통해 타인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I know that whenever I read of someone being killed in a plane crash, I understand what the family is going through because of losing my dad and my brother in a plane crash. And I know the emptiness that they feel. I know the ache that is in their throat. I know the taste of those bitter tears. And thus, I’m able to comfort people in the time of the loss of loved ones, having lost loved ones. 나는 비행기 사고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나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느낄 공허감을 안다. 그들이 느낄 목이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이해한다. 그 비통한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

So the commitment to the will of God. And Jesus committed Himself, “Father, glorify Thy name.” It was at this point that the Father responded. 하나님의 뜻에 위임하는 것이 그 방책이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아버지께 위임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셨다.

Then there came a voice from heaven, and it said, I have both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12:28).

God’s response to that total commitment to His will.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이다.

The people that were standing by, and heard the voice of God, said that it thundered: others said, An angel spoke to him. Jesus answered and said, This voice did not because of me, but for your sake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shall the prince of this world be cast out (12:29-31).

The time of the judgment of this world. The judgment of God for man’s sin. The time has come for that. Jesus is going to take upon Himself the sin of the worl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ve turned every one of us to our own way; but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6). He is going to bear our sin and is going to die for our sin, going to suffer for our sin. Is going to experience that being forsaken of God for our sin. He’s going to go to the cross bearing our sin, taking the judgment of God against sin for u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God is going to judge the sin of the world as it is laid on Jesus and He bears that judgment for us.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 때가 도래한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를 예수에게 물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심판을 담당하실 것이다.

And “the prince of this world,” that is, Satan, “is going to be cast out.” His power over mankind will be broken so that I now do not have to live after the bondage and corruption of my flesh. I can now live after the Spirit. Jesus spoiled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darkness through His cross, His triumphing over them through the cross. So Jesus announces, the judgment of this world of sin is going to come and the prince of this world, his powers against you as a child of God are going to be eliminated. “이 세상 임금” 즉 사단이 “쫓겨나리라.” 인간을 지배하던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나는 내 육신의 속박과 부패를 좇아 살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영을 좇아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패퇴시키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상에서 그것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이다: 이 죄 된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억압하던 그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And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This he said,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12:32,33).

Being lifted up is a reference to being lifted up on the cross. “I, if I be lifted up,” and He’s talking about how He’s going to be lifted up from the earth on the cross, “will draw all men unto Me.”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that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o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들림을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어떻게 들림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Now there are some who take that “lifted up” as sort of exalting Jesus. If we exalt Jesus, if we’re talking about Him and lifting Him up in our conversations, exalting Him, that that is what will draw men unto Him. Perhaps so but that’s not what Jesus is meaning here. There is that chorus, Let’s lift Him higher, let’s lift Him higher, that all the world may see. I cringe when they sing that because He’s signifying He’s going to be lifted up on a cross and it’s as though we’re going to join in and lift Him higher. But in reality, He’s just talking about how it is God’s love was manifest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It’s the love of God that draws us, that attracts us. And it is in the cross that that love was manifested. “들림을 받는다”는 말을 예수님의 승귀(昇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면, 만일 우리가 대화 중에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로 인하여 사람이 그 분께로 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실일지 모르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다: 그분을 보다 더 높이 올려서 온 세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드세. 나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겁이 나서 움찔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는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여 그분을 높이 달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 John 4:10). “God has manifested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Romans 5:8). That’s where the love of God was manifest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The manifestation of God’s love is there at the cross where God gave His Son to take your sins and to die in your place and that is the attractive power of the Gospel, the love of God for us. Willing to sacrifice or give His own Son in order

to save us from our sins.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상에서 나타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흡인력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자기의 친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이다.

The people answered him (12:34),

He’s talking now of His death. He says, a grain of wheat, unless it falls in the ground and dies and so forth, and I’m going to be lifted up, and they understood He’s talking about the cross. So they said, 그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계시다. 그분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We have heard out of the law that the Messiah abides for ever: how come You’re saying, That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who is this Son of man (12:34)?

So the confusion that they have because of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that tell of the reign of the Messiah. How that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Isaiah 9:7). The eternal kingdom. In Psalm 72 verse seventeen, “His Name shall endure forever: His Name shall be continued as long as the sun: and men shall be blessed in him: all nations shall call him blessed. 이런 혼란은 메시아 통치에 대해 얘기한 구약 성구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사 9:7)는 구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시편 72:17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The scriptures that speak of the eternal kingdom, the reign of the Messiah. How is it that you say He is going to be put to death? “Who is this Messiah, this Son of man?” 성서는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영구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메시아는 누구며 이 인자는 또 누구냐?”

Then Jesus said unto them, Yet a little while is the light with you (12:35).

I’m going to be here for just a little while longer.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 더 있게 될 것이다.

Walk while you have the light, lest the darkness come upon you: for he that walketh in darkness doesn’t know where he is going. While you have the light, believe in the light, that ye may be the children of light. These things spake Jesus, and departed, and hid himself from them (12:35,36).

So He really didn’t answer fully their question, “Who is this Son of man?” who You’re talking about that’s going to be put to death. There were many passages of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that spoke of Him being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His being put to death. That the Messiah would suffer. And thus, they were confused. The confusion came because He came first to suffer and die for our sins but He is coming again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nd then He will reign and rule forever and ever. The conflict of thoughts and ideas of the Messiah are resolved in the two comings of the Messiah. So I’m here. While I’m here, I’m the light. Walk in the light. If you walk in darkness, you’ll stumble. Believe in the light. You might be the children of the light.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네가 말하는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다.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후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메시아에 대한 상반되는 사고와 개념들은 메시아가 두 번 강림하게 된다는 데서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 그 빛 안에서 행하라. 만일 너희가 어둠에서 행한다면 너희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And then John tells us, 그런 다음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But though he had done so many miracles before them, yet they believed not on him (12:37):

That is, the religious leaders. They have rejected Him. They are conspiring to put Him to death.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그분을 거부하였다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다.

That the saying of Isaiah the prophet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oke, Lord,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and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12:38)?

This is the beginning of Isaiah 53 in which Isaiah speaks of the suffering of the Messiah and of the death.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turned every one of us to his own ways;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5,6). So that chapter begins with,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Isaiah 53:1)? Who believes it?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그 장은 이런 말로 시작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사 53:1).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는 말이다.

Therefore they could not believe (12:39),

This morning we dealt with this issue of a person coming to a place where they have said no to the gospel of God's grace so many times, they've hardened their hearts so many times that God finally just confirms that. As with the Pharaoh, he hardened his heart against the Lord. He hardened his heart against the Lord. And finally, God hardened the heart of the Pharaoh or as I pointed out in the Hebrew, God made stiff the heart of the Pharaoh. He just sort of confirmed it, He said it. After the Pharaoh had hardened his heart so many times, God then just sealed it, the hardened heart.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여러 번 아니오 라고 말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상고하였다. 그들은 너무도 여러 번 마음을 강박하게 한 고로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의 죄를 확정하셨다. 바로와 같이 그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여호와에게 대항했던 것이다. 여호와를 거슬러 그 마음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뻣뻣하게 만드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두셨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아주 여러 번 강박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셨던 것이다.

There are people that are that way where they have refused the gospel so many times, the invitation to the gospel is no longer given. They could not believe. Paul tells us in Romans 1, “The wrath of God will be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of God in unrighteousness.” How do they do that? “When they knew God, they glorified Him not as God; but became vain in their imaginations,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And professing themselves to be wise, they actually became fools, as they worshipped and served the creature more than the Creator, who is blessed forever more. And because they didn't want to retain God in their mind, God gave them over to reprobate minds. God gave them up to their own vile affections” (Romans 1:18-22,25,26). God just turned them over to that. 복음을 너무도 여러 번 거부하여 더 이상 복음으로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18). 저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는도다” (롬 1:21-26). 하나님은 저들을 자기 소욕 대로 내버려두신 것 뿐이다.

And Paul goes on to describe our society today as the result of God just turning them over to their vile lusts and the things that they wanted to do. Having rejected and not wanting God, then given over to all of these things. “Therefore they could not.” It wasn’t they would not believe any longer, they could not believe.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현재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악한 소욕에게 넘겨주셨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두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끔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때문이다.

because Isaiah said, He has blinded their eyes, He has hardened their heart; that they should not see with their eyes, nor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be converted, and I should heal them (12:39,40).

They’ve gone too far. The religious leaders of Israel have taken the nation too far down. They cannot believe. And thus God has confirmed it, He has hardened their hearts,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there is no healing. There is no remedy. 그들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을 너무 심한 과멸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확정 지으셨으니 곧, 저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어떤 해법도 없게 만드셨던 것이다.

These things Isaiah said, when he saw His glory, and spoke of him (12:41).

However, John does tell us, 하지만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

Nevertheless among the chief rulers also many believed on Him;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they did not confess Him, lest they sh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12:42,43).

John, I think, is being very generous with these people. There is, of course, we know Nicodemus who came to Jesus. There was Joseph of Arimathea who were a part of this council who believed in Jesus. Of course, they had the courage when He was crucified to step forward and to take His body and bury it. All of the disciples had forsaken and fled. But these two men stepped forward in the death, to take the body for a decent burial. And so many of them, he tells us, believed among the chief rulers;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they were silent about it because this is a sad, sad thing,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That’s a tragic verse. 내가 보기에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다. 그는 이 공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믿던 자였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나아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최후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장례 지낸 사람들이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관원 중에도 믿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서글픈,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은 비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Jesus cried and said, He that believeth on me (12:44).

And now He’s going to talk again about this interrelationship between He and the Father. “He that believeth on Me,”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자

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believeth not on me, but on him that sent me. And he that seeth me seeth him that sent me (12:44,45).

I have come to represent God to you. If you believe on Me, then you believe in God. The One who sent Me.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God. He said that to Philip in the fourteenth chapter.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yet haven’t you seen Me, Philip?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John 14:9)? And so He said,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함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다.

I am come a light into the world, that whosoever believeth on me should not abide in darkness (12:46).

When Jesus called Paul to go to the Gentiles, He said,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unto God. He that believeth on Me, should not abide in darkness. 바울을 불러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그분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니라.

John later writes that, “If we say that we are in the light, and yet we’re walking in darkness, we lie, and we do not the truth: But if we will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with each other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cleansing us from all of our sin” (1 John 1:6,7). 요한은 후에 이렇게 적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6,7).

And if any man hear my words, and believe not, I judge him not (12:47):

This He said to Nicodemus back in the beginning, “I didn’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John 3:17). This was illustrated when the woman was brought,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And they said, Our law says, Stone her. What do you say? What did He say? He said to the woman after they had all left, Where are your accusers? She said, I guess I have none. Neither do I condemn thee. Go thy way and sin no more. 예수님은 요한복음 초기에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이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사건에서 구체화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사라진 후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Jesus is saying, I didn’t come to judge the world. I came to save the world. So many times we picture Jesus as judging us. And we’re almost fearful because we think of Him in terms of judgment. No, He’s there to save. He said, “I’m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I’ve come to be a light, whosoever believes in Me should not abide in darkness. If you hear My words, and believe not, I don’t judge you.”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을 심판하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내가 온 것은 빛이 되기 위함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for I came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He that rejects me, and doesn’t receive my

words, has one that judges him: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he same shall judge him in that last day (12:47,48).

Jesus said what is going to judge you is the word. And in that last day, that is the basis of the judgment, the words that He has said. 예수께서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될 것이다.

For I have not spoken of myself; but the Father which sent me, he gave me a commandment, what I should say, and what I should speak (12:49).

I haven't come bringing you My words, I've come to bring you the words of the Father. He's the One who has told Me what I am to say, and what I am to speak.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 말을 전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 함이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내게 명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And I know that his commandment is life everlasting: whatsoever I speak therefore, even as the Father said unto me, so I speak (12:50).

I'm here as God's representative. I'm here to teach you the truth about God. I'm here to show you God's love and God's mercy and God's grace. I'm here to show you God's forgiveness. I'm not here to judge you, I'm here to save you. I'm saying the things that the Father gave Me to say. I'm not speaking of My own self. These are God's words to you and they are life everlasting. So the words of Jesus at this time of crisis.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느니라. 나는 지금 여기 서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노라. 나는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자 하노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자 하노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를 말하고 있노라.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영생이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 된다.

We now move into the night in which He is betrayed. Into the final scene before the cross as John gives us more insight into this night than any of the other gospels. We will be much enlightened as we move into chapters thirteen through seventeen, as John gives us a very thorough, keen, vivid picture of this final night of Jesus with His disciples before His crucifixion.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던 밤으로 향하고자 한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요한복음에서 그 밤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읽는 동안 우리 마음의 눈이 엄청나게 밝아질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밤에 대해 요한은 매우 깊고 예리하면서도 철저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Father, we give thanks to You for Your love for us that was manifested through Jesus Christ. And we thank You for the light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we can walk in the light, even as You are in the light and enjoy this fellowship and this life everlasting. Lord,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when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s that trouble our soul. May we bring all of our cares and cast our cares upon You and commit to You, Lord, the keeping of ourselves. Fully persuaded that what we commit, You are able, Lord, to keep. And so now, Lord, we put our trust in You. We commit our ways unto You. Guide us in Your path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시여,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는 그 빛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런 교제와 이런 생명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우리의 영혼이 고민에 빠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신께 맡긴 것을 당신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신께 맡기고자 합니다.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